

2003년 국내외 석유산업의 환경변화

글 · 이 문 배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이라크 전쟁은 언제 발발될 것인가? 베네수엘라 원유수출 중단사태의 장기화, 그리고 북한 핵 문제의 가시화 등 우리와도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국제적 현안들이 신문과 방송의 뉴스 지면을 온통 장식하는 가운데 2003년의 새해가 시작되고 있다. 세계적인 관심거리이자 우리 나라로서도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이들 3가지 세계적 이슈는 최근의 배럴 당 30달러 대 고유가 상황을 몰고 온 요인으로 올해 우리 석유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대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시 대응능력의 강화와 함께 다각적인 원유의 안정공급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사태와 북한 핵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중요한 대책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겠다.

2. 국제적 이슈와 유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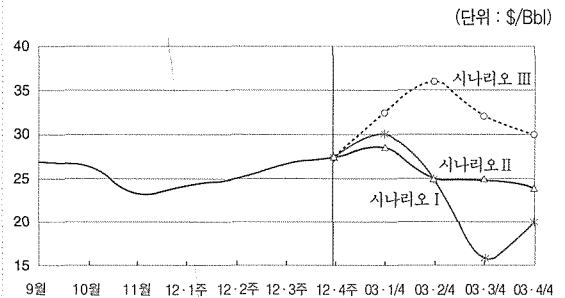
이라크 전쟁의 가능성은 올해 국제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핵심요인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우리정부의 확고한 평화적 해결 의지 표명과 함께 미국 정부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서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중단 사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발발과 중첩될 경우, 세계적으로 석유수급의 심각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파업사태

이라크 전쟁의 가능성은 올해 국제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핵심요인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우리정부의 확고한 평화적 해결 의지 표명과 함께 미국 정부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서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해결 시 1~2달 이내 석유산업이 복원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으로 복귀하는데 최소한 3~4개월이 소요되리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요구를 둘러싸고 2002년 12월초에 시작된 베네수엘라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생산에서 정제, 유통에 이르기까지 석유산업을 모두 마비시켰고 원유수출도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남미에 위치한 OPEC 회원국 베네수엘라는 사우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의 4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체공급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미국은 석유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OPEC이 1월 12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150만 b/d의 증산을 결정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발발 이전 수급악화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라크 전쟁이 당초 예상 일정대로 진행되어 공급중단 상황이 중첩될 경우, 국제유가는 중대한 국면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 전쟁의 발발과 전개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된 2003년 국제유가 전망 시나리오를 감안할 때, 베네수엘라 사태는 상반기 동안 국제유가에 배럴당 약 \$2 내외의 추가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라크 전쟁의 시나리오 구성과 베네수엘라 현 사태를 감안한 유가 전망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오는 2월을 고비로 점차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3/4분기에는 정상화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시나리오별 두바이 유가 전망



- ① 시나리오 I은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 시나리오의 구성이다. 현재 진행중인 UN의 무기사찰활동의 결과에 따라 1/4분기 중 미군 주도의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지만 1개월 이내 단기 전으로 종료되는 것을 가정한 경우이다. 전쟁 종료 이후 이라크에 친미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하반기 이후 원유생산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원유가격은 급속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 원유가격이 1/4분기에 베네수엘라 사태에 따른 효과까지 반영되면서 단기 최고 \$32/bbl까지 예상되며 연평균 가격은 \$22 ~ \$23 수준으로 전망.
- ② 시나리오 II는 UN의 무기사찰활동이 기한을 연장하며 연말까지 사찰활동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석유시장에 전쟁의 우려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사찰단 혹은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사찰의 진행과정에서의 갈등 상황에 따라서 유가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 원유가격은 상반기 동안 베네수엘라 사태의 영향으로 연말 수준보다 약 \$1 ~ \$1.5 정

도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25/bbl 내외에서 강보합세 유지가 예상된다. 두바이 원유 연평균 가격은 \$25 ~ \$26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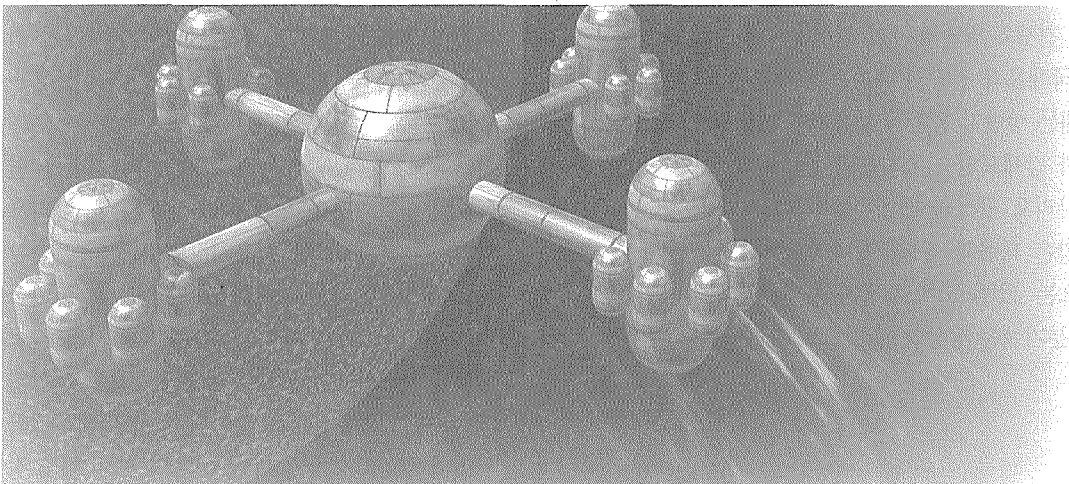
③ 시나리오Ⅲ은 1/4분기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이라크 측의 유전 파괴와 주변국 공격, 주변 아랍국 호응 등으로 전쟁 상황이 확산되며 6개월 이상의 장기전으로 전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중동 주변국에서 원유생산은 물론 선적과 수송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첩되는 기간에는 단기 최고 가격이 \$40/b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가격은 \$32 ~ \$33의 연중 고유가 전망.

3. 국제협력의 필요성

90년대 이전 동북아시아 석유시장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교역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의 일방적인 수출시장이었다. 따라서 국제적 공조보다는 개별 국가의 자원외교 능력이 중시되어왔었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의 개방정책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 국가간 자원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이 점차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석유부문에서는 공동비축의 필요성과 함께 중동산유국에 대한 수입국들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아시안 프리미엄”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아시안 프리미엄이란 중동 산유국들이 극동 아시아지역으로 수출되는 원유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주지역이나 서유럽지역에서 거래되는 배럴당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아시안 프리미엄으로 중동 국가로부터 장기공급계약에 의해 연간 도입물량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총 수입의 80%가 넘는 일본이 원유수입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이미 약 5년 전부



석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수입석유사업자에게 최소 1만 kl 이상의 저장시설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등록 후 1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kl 이하의 판매소에게도 석유수급상황 보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급통계제도 강화시키고 있다.

터 아시안 프리미엄 개선의 공론화를 시도하였고 최근 우리나라가 가세하면서 사우디 등 중동산유국들이 문 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와 우리 에너지경제 연구원(KEEI)이 공동으로 “아세안 프리미엄”의 개선 대안을 찾는 연구를 수행중이며 중국까지 끌어들여 한 중일 3국의 공동연구를 통한 공통의 해법을 찾고 있다. 특히 아시안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마련 하려는 기술적 노력과 함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 사이에 외교적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제협력이 필요한 다른 하나는 아시아 공동 원유비축의 가능성이다. 국제적 공동비축은 여열이 있는 비축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비축비용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실현하자는 목적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국제적 공조의 확대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에 석유현물시장 개설을 포함한 역내 석유시장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4. 유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확립

국내적으로는 WTO 협상에 따른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유통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 단계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감독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최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 방안에는 석유 대리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들 대리점의 대형화와 함께 석유유통 기능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석유부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석유거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유사와 석유 대리점, 석유수입회사, 주유소, 일반판매소와 대규모 구입처를 대상으로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도가 새로이 도입될 예정이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수입석유 사업자에게 최소 1만 kl 이상의 저장시설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폐업이나 등록 후 1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kl 이하의 판매소에게도 석유수급상황 보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수급통계 체제도 강화시키고 있다.

5. 맺는 말

2003년은 이라크 전쟁과 베네수엘라 파업사태의 여파로 대외적 여건에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작되고 있다. 다행히 대다수의 예상대로 미국의 승리로 조기에 종결된다면 석유시장의 커다란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하반기 이후 석유산업은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석유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N 사찰단의 긍정적인 사찰 결과로 전쟁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세계 경제와 석유시장은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전개가 여의치 못할 경우, 연중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함께 세계경제에도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도 전쟁이라는 만약의 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시장개방과 IT시대에 대응하여 석유산업과 유통부문의 경영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